

# 한국영화 3편 비수기에 동시개봉



‘우상’



‘돈’



‘악질경찰’

오는 20일 ‘우상’ ‘돈’ ‘악질경찰’ 한국 영화 세 편이 한꺼번에 개봉한다.

명절이나 성수기가 아닌 봄 비수기에 중량급 있는 한국영화가 같은 날 여러 편 개봉하기는 이례적이다. 지난 6일 선보인 ‘캡틴 마블’과 4월 하순 개봉을 앞둔 ‘어벤져스: 엔드게임’(어벤져스4)과 맞대결을 피하려다 보니 공교롭게 한국영화끼리 맞붙게 됐다.

세 편 모두 각각 색과 결이 달라 관객들은 골라보는 재미가 있을 법하다. 그러나 각 영화는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상’은 한 사건으로 얽힌 세 사람이 이야기를 미스터리 스릴러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장편 데뷔작 ‘한공주’(2013)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수진 감독의 신작이다. 세 편 가운데 주연 배우 면면이 가장 화려하다. 한석규, 설경구, 천우희가 저마다 강한 에너지를 뽐내며 극을 이끌고 간다.

상영시간이 144분에 달하지만, 밀도 있게 전개돼 지루할 새가 없다. 각기 다른 육광을 지닌 세 인물이 내린 선택을 통해 우리가 믿는 우상의 헛됨과 허망함을 이야기한다. 다양한 은유와 상징, 함

의가 담겼다. 불친절하게도 느껴지지만, 여느 상업영화와 달리 곱씹어보는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이미 영화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시사화를 통해 영화를 먼저 본 관객 간 활발한 토론이 이뤄진다.

이수진 감독은 “낯설지만 다양하게 사유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면서 “그 낯설이 좋은 느낌으로 다가갈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류준열이 주연한 ‘돈’(박누리 감독)은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여의도에 주식 브로커로 입성한 한 젊은이의 흥망성쇠를 그린 범죄영화다. 클릭 몇번으로 큰 돈이 오가고, 돈이 돈을 버는 주식시장과 증권가 이면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금융 용어가 등장하지만, 몰라도 영화를 따라가는 데는 문제 없다.

‘청춘의 아이론’으로 불리는 류준열 연기가 발군이다. 순진하고 의욕 넘치던 신입사원이 돈맛에 빠져서는 점차 광기 어린 모습으로 바뀌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연기했다. 투자배급사 쇼박스 관계자는 “재밌고, 속도감 있으며 단순한 스토리여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악질경찰’은 각종 비리와 범죄를 저지르던 ‘무늬만 경찰’ 조필호(이선균)가 폭발사건의 용의자로 몰리고 거대 기업이 음모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범죄영화다.

악행을 일삼던 조필호는 여고생 미나(전소니)를 만나면서 조금씩 변화해간다. 미나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친구다. 나쁜 어른끼리 싸움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인물이다. ‘아저씨’(201), ‘우는 남자’(2014) 등 범죄드라마 장르에 강한 이정범 감독 신작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른들의 죄책감을 에둘러 담았다.

이 영화 관계자는 “장르적으로 접근이 쉬운 범죄드라마”라며 “조필호라는 악질 경찰 캐릭터가 변해가는 과정이 관전 포인트로, 전소니의 색다른 매력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제작비는 ‘우상’이 98억원, ‘돈’ 80억원, ‘악질경찰’이 90억원으로, 손익분기점은 각각 260만명, 200만명, 250만명이다.

최근 극장가는 봄 보릿고개에 접어들어 세 편 모두 제작비를 회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루 극장 관객 수는 이달 초 평일 50만 명 선에서 최근 20만 명 선으로 떨어졌다.

다만, 세 편 동시 개봉으로 작년 봄보다 시장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영화계 관계자는 “‘캡틴 마블’ 개봉으로 몇 주간 한국영화가 공백 상태라 한국 영화에 대한 니즈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비수기에 ‘완벽한 타인’ ‘보헤미안 랍소디’가 입소문을 타고 흥행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성공 사례가 나올지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극장들은 스크린 배정을 고민 중이다.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셋 다 연기력이 보장된 배우들과 눈길어가는 스토리, 비슷한 규모의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여서 스크린 편성에 고민이 많다”고 귀띔했다. /연합뉴스

## ‘빙속 여제’ 이상화·가수 강남 ‘열애’ 인정

‘정법’서 만나 5~6개월 교제



빙속 여제 이상화(왼쪽)와 가수 강남

“(이)상화의 털털하고 착한 모습이 좋았어요. 둘이 비슷한 시기 호감을 갖고 서로 고백했어요.”

가수 겸 방송인 강남(32)이 연인 사이로 공개된 ‘빙속 여제’ 이상화(30)에 대해 소탈한 모습이 매력이었다고 이렇게 말했다.

강남은 최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상화가 금메달리스트이자 나라의 보물 같은 선수인데도 여에게 힘이 들어가 있지 않고 착했다”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잘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고 소개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방송된 SBS TV ‘정글의 법칙 인 라스트 인도양’ 편에 함께 출연하며 친분을 쌓아 연인으로 발전했다. 지난해 11월 방송된 TV조선 ‘한집 살림’에 함께 출연해 역술인에게 고품을 보기도 했다.

강남은 “둘이 ‘정글의 법칙’ 촬영 때 계속 함께 다니면서 친해졌고, 이후 회식 자리에서 몇 번 보며 호감을 갖게 됐다”며 “교제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5~6개월 정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온라인 매체마켓뉴스는 두 사람이 열애 중이라며 도심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함께 일본 여행도 다녀왔다고 보도했다. 또 이들이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이날 열애설이 난 뒤 강남이 상대를 배려해 조심스러워 한 것과 달리 이상화는 평소 성격대로 ‘쿨’하게 인정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은 이에 대해 “사실 저는 관찮지만 상화가 운동선수여서 고민이 됐다”고 애둘러 말하며 “잘 만날테니 좋은 시선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상화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2014 소치 동계올림픽 500m 금메달리스트이자,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00m 은메달을 획득한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3관왕 선수다. 최근 추성훈과 광희 등이 있는 본부 이벤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달 방송된 SBS TV ‘집사부일체’에 출연했다.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강남은 2011년 합합 그룹 엠.아이.비(M.I.B)로 데뷔해 예능에서도 활약했다. /연합뉴스

## 배우나 ‘보그’ 미국판 표지 모델 한국인 최초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배우 배우나(40)가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패션잡지 ‘보그’의 미국판 표지를 장식했다.

16일 배우나 소속사 셋별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배우나는 미국 배우 스칼릿 조헨슨, 인도 배우 디피카 파두콘과 함께 보그 미국판 4월호 표지에 나란히 등장했다.

배우나는 영화 ‘공기인형’, ‘주피터 어센딩’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센스8’, ‘킹덤’ 등에 출연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아이템(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 :죄와 벌(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아이템(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KBC특집 파워인터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을 행복아카데미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기억, 록, 100년을 탐험하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50 공감다큐, 사람(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지원	25 뿌까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뽀사 메가드 스페셜	00 월드컵다큐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만일(재)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우기	50 원소폰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교황견문록 남도에 살아리렀다 30 생방송 TV블로그 풍자극
8	30 비켜라 운명야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색선 TV 연예통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5 나의 독립 영웅(정정화)			
10	00 가요무대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죄와 벌	00 아이템	00 해치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안녕하세요	10 설탕의 제국 1~2부	10 통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스포츠토크선 <2019 KBO리그 개막 특집 베이스볼 사피엔스>	30 나이트 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무수분 토마토카레와 대패삼겹살 고추장볶음>	16:45 덩동덩 유치원1~2(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7:15 마사와 곰
06:00 한국기행(재) <봄과 한 뼘 사이 1부>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로보가 폴리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7:00 레이디버그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제로미노 스토리의 모험
07: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8:00 덩동덩 유치원1~2	13:10 고양이를 부탁해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8:30 띠띠뽀 띠띠뽀	13:40 배워서 남줄림(재)	20:40 세계테마기행 <중국 대합곡 기행 1부 절벽 미술 사람들>
08:45 방귀대장 뽀뽀	14:30 꼬마허어로 슈퍼잭	21:30 한국기행 <남쪽나라 오감기행 1부 만지다, 봄>
09:00 뽀로로와 노래해요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50 EBS 다크프라이미
09:15 뽀뽀뽀 뽀로로	15:15 탐영 구조대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9:30 원더볼츠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3:55 배워서 남줄림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15 짝과 팡	24:50 세계의 드라마
10:30 한국기행(재)	16:30 방귀대장 뽀뽀(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36년생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48년생 소리쳐 불러보면 돌아오게 되어 있다. 60년생 하등의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니 기탄없이 진행하자. 72년생 방법에 따라서 상황이 판이해질 수 있겠다. 84년생 돌발적인 변수의 상황까지 예견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79, 20</p>	<p>42년생 가장 쉬운 것부터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4년생 위안을 주는 소식을 접하게 될 수도 있다. 66년생 시도한다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관세이다. 78년생 중심을 잡지 않으면 혼돈에 빠지리라. 90년생 지나치다보면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7, 19</p>
<p>37년생 짐작을 떨쳐버려야 큰일을 도모할 수 있다. 49년생 확실하지 않으면 관여해서는 아니 될 것이니 무의미하다. 61년생 표면의 현상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곤란하다. 73년생 흐르는 물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 85년생 분명하게 유념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0, 94</p>	<p>43년생 충분히 의사 전달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55년생 주위의 환경에 따른 변수가 크니 대안을 마련하자. 67년생 기쁜 마음으로 임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79년생 이해하고 넘어가도 무방하다. 91년생 즉시 조처했을 때에 부작용을 줄인다. 행운의 숫자 : 28, 71</p>
<p>38년생 습관적 행동을 주의하라. 50년생 속도 보다 완성도가 요구되는 판도이다. 62년생 우려하여 왔던 바는 아니니 부담감을 떨쳐버려도 된다. 74년생 원래부터 타고 난 몫이 다르니 상대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86년생 완전한 결말을 짓게 되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47, 21</p>	<p>44년생 확신을 가지고 집진적으로 진행해야만 한다. 56년생 지금 정확히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68년생 지리 멀릴 해왔던 일들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다. 80년생 눈에 띄더라도 못 본 체하고 있는 것이 더 낫다. 92년생 기다려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 66</p>
<p>39년생 오늘날 날이 아니니 무리할 필요는 없다. 51년생 처음에는 부담스럽겠지만 면역력이 생겨서 괜찮을 것이다. 63년생 철저하게 선별하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한다. 75년생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87년생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44, 29</p>	<p>45년생 드러나는 형태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57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핵심에 집중해야 할 판국이다. 69년생 아니다 싶으면 즉시 접어라. 81년생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93년생 진실함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7, 98</p>
<p>40년생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52년생 허구 한다 면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 64년생 작은 것을 소중히 다뤄야 큰 것을 얻는다. 76년생 부작용으로 나타날 공간이 크다. 88년생 몇 발자국 물러나서 살펴보면 전혀 다른 현상이 보이리라. 행운의 숫자 : 86, 45</p>	<p>34년생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급히 개선책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 46년생 성급하게 나서거나 단시간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58년생 다양하게 접해 볼 수 있다. 70년생 바로 그것이다. 82년생 회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81, 23</p>
<p>41년생 공감하였다고 해서 공동 행동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53년생 잘 되어 있으나 무경만 열면 된다. 65년생 치밀한 기획이 선행되어야 목적이 바를 이루어리라. 77년생 별문제 없으니 그대로 추진해도 된다. 89년생 인맥을 동원할 때다. 행운의 숫자 : 68, 62</p>	<p>35년생 맹목적인 집착은 소모적인 국면이 이르게 한다. 47년생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라. 59년생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71년생 아예 염두에 두지 않음이 나을 것이다. 83년생 당시의 현상에서의 사 표시가 분명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2, 86</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